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3년 표어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十행 동지 십

- 1. 다시 말씀 앞에(Reconfirm)
- 2. 다시 교회로(Rebuild)
- 3. 모두 함께 기쁨으로(Rejoice)

발행인 : 순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다시 듣고 싶은 설교 ㉠

위로하라 내 백성을

(사 40:1-5)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심판(1-35장)과 하나님의 구원(40-66장), 중간에 역사적 기록(36-39장)이 전환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사야서는 심판의 엄한 선언 뒤에는 반드시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가 따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굳게 하라”(마 3:3). 이 말씀은 본문 3절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인용한 것으로 마태는 이 말씀이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고 이종운 원로목사

1. 선지자의 사명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1절).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짓궂기로 도탄 중에 빠진 백성이라도 ‘내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범한 백성을 버리시거나 고통 중에 있게 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는 ‘너희 하나님이 장차 말씀하실 것인데’라고 번역됩니다. 이것은 가까운 장래에 유대인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또 먼 장래에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달도록 말하며?(2절). 이것은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식과 양심과 감정에 합당한 말을 하여 저들의 마음이 강동 감화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용기를 주어 바른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의 막대기와 진노의 지팡이를 드시어 죄인들을 때리시지만 죄인이 회개할 때에는 용서하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징계하시나 한편으로는 싸매시고 위로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가 되시어 위로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마음에 평안과 안정감을 주시며 상한 영혼을 치료하시어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① 위로의 조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죄를 없게 해야 하며 지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난의 때를 감수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 안위와 위로를 받게 됩니다.

② 위로의 내용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2절). 노역은 강요된 고생으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받은 고생을 말합니다. 형벌은 부채에 대한 채무와 같습니다. 따라서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부채를 완전히 갚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과 위로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③ 위로의 방법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 말씀으로 직접 위로하시기도 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절망 중에 있는 이에게 위로와 힘이 되며 메시아의 오심은 전 인류에게 주는 최대의 위로이며 복음입니다.

④ 위로의 결과

위로의 직접적 결과는 평강과 행복입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사람은 영혼이 만족하게 되고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과 회복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2.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3절).

본문 3-5절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는 외치는 자의 모양은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리는 것으로 세례 요한은 이것을 ‘광야의 소리’라고 하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높였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그의 구원에 참여할 자들이 마음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4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할 자들은 골짜기와 같은 음흉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음흉한 것은 복음의 원수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은 산이나 언덕과 같이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믿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르지 않은 마음도 정리해야 합니다. 고르지 않은 마음은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모든 험한 곳, 즉 고개와 같이 순조롭지 못한 까다롭고 강박한 마음도 반듯하게 펴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항상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5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사역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영광을 예비할 때 주님은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사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위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그분을 모실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여 예수님의 그 크신 위로를 받고 누리며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독교, 한글을 사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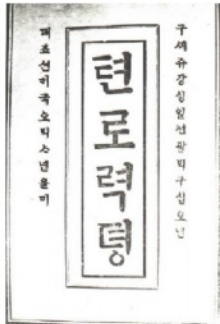


손달익 위임목사

1911년 총 2,174쪽에 94만여 자를 수록한 성경전서가 출판
풍부한 어휘와 활자로 한글이 사용된 전례가 없었다
한글도 수준 높은 사상을 전달하는 데
손색이 없다는 것이 완벽하게 증명되는 순간
최현배가 "세종대왕의 한글창제의 거룩한 뜻이 기독교에서 실현된 것"이라..



게일(James S. Gale)과 천로역정



독립신문



그리스도신문



1911년 성경전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파송을 받는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다. 한국에 온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선교사들이 한글을 배우기 위해 참고할 만한 책이 없었다. 가톨릭 선교사가 만든 한국어-프랑스어 사전인 「한불사전」과 만주의 로스 선교사가 출판한 「한국어 첫걸음」(Corean Primer) 정도가 있을 뿐이었다. 결국 내한 선교사들은 스스로 한글을 공부하기 위한 책을 만들었다.

언더우드가 「한불사전」을 참고해가며 「한영문법」(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 「한영사전」, 「영한사전」을 간행했고, 게일(James S. Gale)은 1893년 「사과지남」(Korean Grammatical Forms)과 1897년 「한영대사전」을 발간했다. 애니 베어드(Annie. L. A. Baird)도 한국어 교과서인 「한글입문서」(Fifty Helps for the Beginner in the Use of The Korean Language)를 발간했다. 물론 이런 작업은 선교사의 노력만으로 가능하지 않았다. 선교사들이 개인적으로 채용한 조선인 어학선생의 도움이 매우 중요했다.

선교사들이 한국어를 배우게 되면서 한글은 자연스럽게 선교언어로 자리잡게 되었다. 1893년 1월 미북장로회 선교부는 선교 방침으로 '모든 문서는 한문을 섞지 않고 순전히 한글로 인쇄한다'를 채택했다. 미북감리회 선교부도 1888년 배재학당에 한글로 인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활판 인쇄소인 삼문출판사를 차리고 성서와 찬송가는 물론 「천로역정」과 같은 각종 기독교 문서를 순한글로 출판하였다. 또한 독립협회 기관지 「독립신문」(1896년 창간), 미북감리회 기관지 「조선그리스도인회보」(1897년), 미북장로회 기관지 「그리스도신문」(1897년) 등의 여러 순한글 신문을 인쇄하였다. 선교사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글을 사용하면서 기독교의 복음은 짧은 기간에 전 계층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 선교사들은 한글의 우수성을 잘 간파하였던 것이다.

반면 한글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이후 400년 만에 처음으로 공공언어로 사용되면서 서서히 나라글(國文)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실제로 한글은 창제 이후에도 한문을 숭상하는 사대부 계층의 억압을 받

으며 오랫동안 무시당해 왔다. 조선시대 내내 공공언어는 한문이었으며 한글은 비공식적인 보조언어에 머물러 있었다. 수준 높은 사상적 체계를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해 아녀자 또는 아이들이나 쓰는 글로 취급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종교이자 사상체계인 기독교가 한글을 통해 선교에 나서자 비로소 우리 사회에 한글이 공공언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11년 총 2,174쪽에 94만여 자를 수록한 「성경전서」가 출판되었는데 이처럼 풍부한 어휘와 활자로 한글이 사용된 전례가 없었다. 한글도 수준 높은 사상을 전달하는 데 손색이 없다는 것이 완벽하게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한글학자 최현배가 "세종대왕의 한글창제의 거룩한 뜻이 기독교에서 실현된 것"이라 한 것이나, 전택부가 "한글성서는 한국 국어사에 있어 가장 커다란 사건"이라 말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이다.

배재학당 삼문출판사는 한글연구에 중요한 인물을 배출하였다. 주시경이다. 주시경은 배재학당 학생 시절 학비를 벌기 위해 이곳에서 일하다가 한글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이후 평생을 한글 연구와 보급에 바친 사람이다. 그리고 주시경 선생의 제자들은 일제 말의 민족 문화말살정책에 맞서 한글을 수호하기 위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투옥되었던 이윤재(안동교회 장로), 최현배(새문안교회 집사), 김윤경(정동교회 교인)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교회 역시 1940년대에 일본어로 설교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한글성서와 찬송가를 사용하여 예배를 드렸다. 최현배는 "우리 말, 우리 글 수호의 공을 기독교에 인정하여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기독교는 잠자던 한글을 깨워 우리 민족의 언어로 자리잡게 하였고 일제의 탄압에 맞서 한글을 지켰다. 지금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우리 말과 글로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에는 신앙선배들의 공과 희생이 크다. 우리가 그들에게 감사를 표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이다.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1-8)

소소한 재미와 함께 하는

'서울교회 봄맞이 대청소 축제' 청소 포인트!!

4월 1일(토) "2023년 서울교회 봄맞이 대청소 축제" 당일 청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각 부서는 한 주일 전인 오늘(3월 26일) 쓰레기와 쓰지 않는 집기 등을 미리 지하 1층 지정된 장소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과 분리배출 할 물건들을 꼭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층별 청소 포인트!

① 공통 포인트

의자 밑 공간과 등받이와 바닥이 만나는 부분 틈새에 대체로 음식물 부스러기, 종이류, 먼지 등을 청소하실 때 가장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② 1층

- 웨민홀을 중심으로 청소.
- 의자가 많이 남아 있어서 조심해 주세요.
- 카펫은 진공청소기로 청소.
- 비상계단 쪽에 있는 적재물들과 서적부실(창고)에 방치되어 있는 물건들을 정리

③ 2층

- 본당은 의자를 주로 닦아 주시고.
- 본당 의자가 오래되어서 양쪽이 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하여 받침대를 대 주세요. 또한 의자에 가방걸이 등이 떨어져 못이나 위험한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확인하여 수리 및 수리 요청 부탁드립니다.
- 로비와 새가족 환영실(202호), 계단 옆 구석진 곳 그리고 외부의 출입문 유리창과 바닥을 신경 써서 청소하여 주십시오.

④ 3층

- 본당 바닥과 의자 청소 부탁드립니다.
- 기도실은 바닥이 전기관방 되는 곳이므로 물청소는 하시면 안 됩니다.(합선 위험) 마른 걸레와 빗자루로 청소 부탁드립니다. 안쪽에 있는 의자들을 중심으로 청소를 부탁드립니다.
- 3층 로비 진열대에 서울교회 역사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청소하실 때 창을 열고 안쪽에 쌓인 먼지를 잘 털어 주시기 바랍니다.

⑤ 4층

- 4층은 현재 잘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본당 내부와 로비에 있는 먼지를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영아부실은 바닥 전기관방이 되므로 물걸레 청소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합선위험)

⑥ 5층

- 5층은 찬양대가 501호 502호 503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찬양대 악보 등을 정리하시고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히 501호는 중등부와 함께 사용하고 있으므로 드럼 등의 악기가 상하기 않게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01호실 뒷쪽에 504와 505호실이 있는데 교사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각종 서류와 비품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서류와 비품 정리 및 청소 필요합니다.
- 장의자 청소 시에는 나무젓가락을 사용하여 등 받침 밑부분에 끼있는 불순물을 제거 부탁드립니다.

⑦ 6층

- 6층은 교육실이 대부분임으로 601호와 603호실은 가벼운 이동식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어 옆으로 치워놓고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 602호는 새가족부실로 본당 장의자가 설치되어 있어서 천에 붙은 먼지와 머리카락 등을 중점 청소 바랍니다.
- 그 외 소규모 교육실(606, 609호)도 마찬가지로 청소해 주시면 됩니다.
- 장의자 청소 시에는 나무젓가락을 사용하여 등 받침 밑부분에 끼있는 불순물을 제거 부탁드립니다.

⑧ 7층

- 7층은 701, 702, 706호 모두 큰 규모의 교육1국 교육실로 전기바닥난방이 설치되어 있어 물걸레 청소보다는 빗자루 등으로 쓸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 교회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 집기류가 상당히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⑨ 8층

- 801호 만나홀은 330석 규모입니다. 될 수 있으면 먼저 의자를 책상 위로 올린 후 바닥 청소 부탁드립니다.
- 바닥 청소 후 식탁도 깨끗한 행주 등으로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 802호는 40-5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실로 마룻바닥입니다. 물걸레 가능합니다. 의자를 치운 후 빗자루와 물걸레로 청소하시면 됩니다.

* 5, 6, 7, 8층은 미세먼지와 환기 시 들어오는 벌레들로 인해 창틀과 모퉁이에 거미줄과 먼지가 많이 있습니다. 창틀은 걸레로 모퉁이에 있는 거미줄은 빗자루로 제거를 부탁드립니다.

⑩ 외곽 청소

외곽 청소는 주변에 있는 쓰레기 및 담배꽂이를 청소할 계획입니다.

⑪ 지하 주차장

- 지하 주차장은 비상계단 통로에 쌓여 있는 적재물들과 층별 배수로로 청소 부탁드립니다. 올해 장마를 대비하여 배수로에 막혀 있는 나뭇잎과 쓰레기 등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⑫ 비상계단

- 이강전 집사님과 정예 멤버 구성

* 교회 준비물

- PB-1 말통 3개
- 극세사 밀대, 목장갑, 빗자루, 대걸레, 집계(외곽청소), 나무젓가락
- A형 사다리 2개
- 쓰레기봉투 및 재활용 검정 비닐봉투
- 프라스틱통 55L, 운반구 55리터 용각 3개(2, 3, 4층 손걸레 세척용)

* 개인 준비물

- 비닐장갑, 고무장갑, 개인 손걸레



초대 교회사 강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김동진 안수집사
(신앙강좌부 부장)

성경은 역사 속에 살
아있는 생명의 말씀으
로 단순히 읽는 것만으
로는 성경 자체와 우리
의 신앙이 자칫 공허하
고 맹목적일 수가 있습
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역사 배경을 이해할 때
비로소 모세 오경과 열
왕기 및 역대기 등과 같
은 역사서와 그리고 많은 선지서의 내용이 우
리에게 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의
시작과 기록도 단순히 우리에게 전해지고 알
려진 사실이 전부가 아니라 오랜 시간 속에
사도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구자들의 신앙적
고난과 신학적 논쟁과 고민을 거치면서 오늘
우리에게 깔끔하게 다가온 것입니다.

2023년도 신앙강좌부에서도 이러한 관점

에서 초대교회의 역사적 배경과 교회 발전과
정에 대해 시대별로 정리하는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와 오순절 교회의 형성
그리고 그 이후 로마 제국의 박해와 공인 등
수난과 극복의 시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초기 복음의 시대를 넘어 로마교회
와 동방교회의 형성 과정을 통해 복음의 확장
과 발전 그리고 교회의 다양성과 통일성의 관
점에서 우리 시대 이전의 교회사를 돌아보는
것은 물론 시대마다 고백문 형식으로 중요한
신앙의 내용을 담아낸 신조가 정통 교리를 수
호하고 이단적 교리를 배격하려 노력했던 교
회의 중요한 유산이라는 점을 깨닫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겪게 된 시행착오 가
운데서도 신앙적 도전과 실패를 돌아보며 믿
음의 굳건함과 앞으로의 한국교회가 나아가
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보는 뜻깊은 수업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시간 : 주일 12:15(2월 5일-12월 24일)
- 장소 : 802호
- 대상 : 서울교회 교인 누구나
- 지도 : 양정호 협동목사
(서울장신신학대학교 교수, 교회사 및 역사신학)
- 강의 내용:
팔레스타인 유대교와 디아스포라 유대교
복음의 시작과 교회의 시작
사도 바울의 사역과 이방 선교
사도들의 사역
기독교에 대한 뜯소문, 비판, 혐오
초기 이단들과 이단의 도전에 대한 응전
초대교인들의 교회생활
기독교 공인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칼케돈 공의회와 삼위일체교리의 확립
서로마제국의 멸망과 교회의 역할변화
교황제도의 형성과 동방교회
초대교회의 교훈 등
- 강의 신청
① 부담없이 직접 강의실 참석 환영
② 김동진 안수집사(부장) : 010 5308 1974
③ 이웅성 안수집사(부감) : 010 6301 5423
정진영 권사(부감) : 010 9352 5081
* 신청하신 분들은 단체 카톡방에 초대받아 강의노트와 강의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은혜, 눈물 그리고 다짐의 시간



양세정 집사
(교구)

아이 덕분에 초등부
학부모회 회장과 초등부
교사가 되었지만 그 이
전에 한 아이의 엄마로
서 참석한 학부모 초청
회는 “은혜, 눈물 그리고
다짐”의 시간이었습니
다.

깨끗하게 정리된 초
등부실과 정성 가득한
간식과 선물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학부모님들에게 좋은 첫인
상으로 모임을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
다. (나중에 아이들이 직접 청소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땐 감동이 두 배였다는 건 비밀!)

부장 집사님의 감동적인 기도로 마음이 활

짝 열렸고, 전도사님의 잘 준비된 슬라이드와
진행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초등부 교육
활동들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초등부는 “함께 모여! 삶으로! 예배하는 우
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 12장 1절 “너
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를 주제성구로 삼아 신나고 즐겁게 교회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아
는 것에서부터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교육하는 초등부의 교육목표와 방향은
부모인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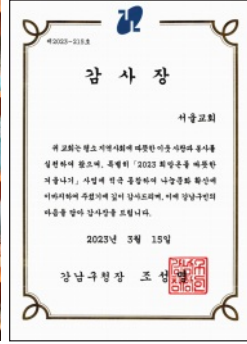
학년별 학부모 모임에서는 같은 학년 학부
모임들의 얼굴을 뵈고 서로 교체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짧지만 반가운 순간이었습
니다. 그 후에 전도사님의 인도로 이어진 기

도회에서 하나님께 부모로서 우리의 부족함
을 고백하고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위탁하
는 눈물의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범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낮아지
심으로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예
수님을 본받아 이 시대의 진짜 리더가 되어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초등부
어린이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먼저 그
러한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또한 초등부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축복하
며 초등부 안에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길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좋은 모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교회는 지난해 11월 16일(수), 바자 수익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대치동 관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대치1동에 기부한 바 있다. 이 기부금은 '2023 희망은들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기탁되었었다. 이에 지난 3월 21일(수) 대치1동에서 교회에 감사패를 전달하였었다.

인생의 실버를 선교의 골드로! 살롬경로대학



한 걸음! 한 생명! 땅끝까지 화이팅!



70인전도대는 지난 3월 22일 수요노방전도를 리브가전도회 12명과 함께 19명이 진행하였다.

전도할 때 성령님 함께 하시어 예비하신 영혼이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로 발걸음을 돌이키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성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1/4분기 새가족 환영회

새가족부(새가족 위원장 겸 부장 : 노제현 장로)는 오늘 2부 예배 후 802호에서 1월부터 3월까지 새가족부 교육 수료자를 환영하는 새가족 환영회를 가진다. 이 자리에는 위임목사, 수료자들의 소속 교구장, 지도교역자, 다락방장, 담당 교사가 참석한다.

새가족부 수료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권대영·방효정 부부 성도(1교구 9다락방) 신두철·김은경12 부부 성도(3교구 3다락방) 이준원2 성도(4교구 2다락방) 이영문 성도(1교구 9다락방) 정선미2 성도(3교구 3다락방) 조은혜 성도(3교구 4다락방)

2023년 서울교회 봄맞이 대청소 축제

관리위원회(위원장 : 이강인 장로)는 오는 4월 1일(토)에 예정되어 있는 봄맞이 전교인 청소의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 교구 단체선물과 보물찾기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교구 단체선물은 안전점검과 검사를 담당하는 교구위원장 서은석 장로가 교구별 참석

인원과 청소상태를 점검하여 주어지며 보물 찾기는 성도들이 청소하며 찾을 수 있도록 교회 구석구석에 숨길 것이라고 한다.

2023년 봄맞이 전교인 청소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서울교회 열린프로그램 봄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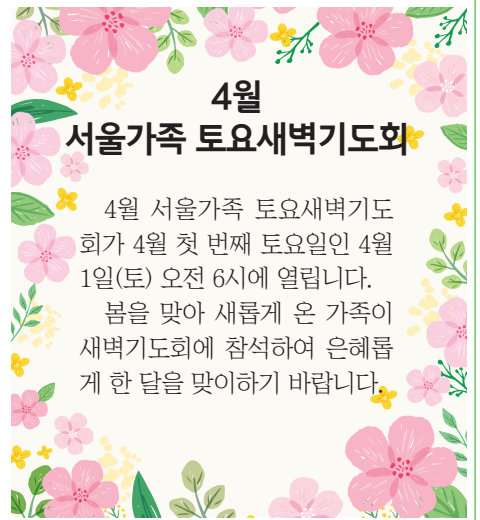
교육위원회는 문화나눔, 말씀에 기반한 찬양 문화의 형성,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교회 중심의 리더 양성 문화를 고취하고자 열린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수강자들을 모집한다.

- 학기운영 : 클래스당 3개월 단위 (겨울, 봄, 여름, 가을), 10주 코스
- 23년도 봄학기 : 4. 15(토)-6. 18 (주일), 10주
- 운영비 : 각 클래스당 월 15,000원 (3개월 : 45,000)
- 문의 및 신청 : 남재은 집사 (010-9189-8019)

구 분	요 일	시 간	과 정	장 소	강 사
클래식 기타 합주	주일	12:40	10주	505호	장윤식 안수집사
통기타	주일	13:50	10주	505호	박민서 안수집사
	토요일	10:00	10주	505호	김상윤 선생
베이스 기타	토요일	11:30	10주	505호	
드럼	토요일	13:00	10주	101호	한도연 선생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3월27일	월	삿 13-16		욘 35-42	
3월28일	화	삿 17-19		시 1-11	
3월29일	수	삿 20-21		시 12-21	
3월30일	목	룻 1-4		시 22-33	
3월31일	금	삼상 1-3		시 34-40	
4월1일	토	삼상 4-8		시 41-50	
4월2일	주일	삼상 9-12		시 51-65	



4월 서울가족 토요일새벽기도회

4월 서울가족 토요일새벽기도회가 4월 첫 번째 토요일인 4월 1일(토) 오전 6시에 열립니다.

봄을 맞아 새롭게 온 가족이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여 은혜롭게 한 달을 맞이하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식사는 맛나홀에서! 쓰레기는 지하 1층 쓰레기장으로!

- 동 정**
- 식사 제공 : 4교구 이용자 권사 (범사에 감사드리며 교회 제공)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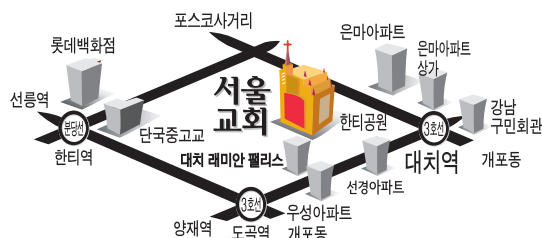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사순절 다섯 번째 주간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삶으로 스며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웃에게 퍼져나가게 하소서.
2. 서울교회 봄맞이 대청소 축제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교회당과 성도들의 심령과 성품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새롭게 단장되게 하소서.
3. 이 땅에 복음화된 통일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전쟁과 갈등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평화와 구원이 있게 하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I 부 예배	오전 9시
	II 부 예배	오전 11시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I 부 예배	오전 11시
	II 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민스터 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민스터 홀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